삼엄…沈痛…

校庭서도 최루彈發射 高大

一部學生들"自退願내자"고 놀라움에차 흥분

武裝軍·警, 高·延大 投入하던날의 캠퍼스

학원사태수습에관한 朴대통령의 특별명령이 내려지면 十五일 정오 고려대 연세대에는군병력과 경찰기동대가 투입, 학생들을 연행하는 바람에 학원안은 온통 삼엄한가운데 침통한 표정이었다. 일부대학생들은 『정부의 강경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학생들간의 대화의길을 막는것이 아니냐』고 침통한 표정이었으며 일부교수들은 『학원질서를위해 학생들의 자중도 필요하지만 이같은 강경책이사태를 극한으로 몰고가지않겠느냐』고 앞으로의 사태를 우려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각시위에 나선 대학은없었으나 연세대 고려대에는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이 들어와 학생들을 연행해 갔으며 다른대학에서는 학생회간부들이 회의를열어 이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도했다.

十五일이 개교기념일이어서 이날 휴무중인 서울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하지않았으나 개교기념식에 참석했던 몇몇 학생들은 『학원자유가 무너지는일』이라면서 침통해했고 연구실에 나온 일부 교수들도 『아직 공식적인 지시가없어 무어라고말할수없다』면서 『학원질서를위해 학생들의 자중도 필요한것이지만 이같은 강경방침이 학원자유를 침해하는것이 되지않을지 우려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난 十三·十四양일간 등교를거부했던 고려대학생들은 十五일오전 대부분이등교, 강의를 받아 일단정상수업에들어갔으나 군병력이 들어와 최루탄을 발사, 七十여명을연행하자 일부학생들은 『자퇴원서를내자』고 놀라움에차 흥분했고 교수들은 『할말이없다』며침통해있었다.

또한 이날 오전 연세대에모인 전국학생연맹 간부 十여명은 울분을 감추지못하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李根植연세대학생처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학생들의 자제와 학교당국의노력 정부당국의 아량이 아쉽다』고 말했다.

「아량과誠意로·混亂묵과못해」

學園事態收拾論議한 大學總長·政府側 견해

教鍊반대·不正규탄·軍人亂入등

熟議三時間 意見갈려

3시간동안 학원사태수습책을 진지하게 논의한 전국대학총학장회의。

十四일오후 二시부터 중앙청 제一회의실에서 학원사태수습책을 논의한 전국대학총학장회의에서 많은 총학장들은 『최근의 학원 동요가 교련거부학생징집 조치등 강경책만으로 해결될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좀더 아량과 성의를 갖고 설득을 계속하자』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측은 『소수 학생들에의해빚어지고있는 대학의 혼란상태를 더이상묵과할수없으므로 강경책을 후퇴시킬수 없다』는 태도를 거듭강조했다.

이날회의엔 七十개총학장들과 정부측에서 閔寬植문교장관 柳根昌국방차관 鄭成觀내무차관 沈[illegible]문교차관등이 참석, 대학생들의 교련반대 부정부패규탄 무장군인고려대난입사건등에따른 학원사태에대해 약三시간동안이나 논의했는데 총학장들과 정부측사이에 그수습책을놓고 이같이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이날 발언에나선 많은 총학장들은 『최근의 학원사태엔 총학장들의 힘만으로는 수습할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요인이 작용하고있으므로 정부가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문제를 다루어달라』고 요구했으며 ROTC아닌 일반교련교관은 예비역으로 바꾸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내세운 총학장들도상당수있었다.

이날 총학장들의 발언과 정부측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學園收拾회의의 發言內容

國家的·社會的차원서 다뤄야

▲趙永植경희大총장=최근의 학원사태는 심상치 않은것 같다. 그러나 이는 학원에서 해결될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한다. 학생들의 주장에는 옳은 것도있고 그른것도있으니 잘잘못을가려 고칠것은고쳐야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은 정부가 파악하고 일관성있게 막아야한다. 가령 정부가 학생을 처벌하겠다가 얼마뒤엔 풀어주마고한다든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교련거부학생을 징집해야겠다는 고충은 알겠으나 대화를 통한 설득이 더아쉽다.

現役教官은學生지도에 無關心

▲申共頥부산大총장=현역교관은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비역 장교들보다 학생지도 문제에 대해선 무관심 한것같다. 교련미수강학생을 十五일까지 신고하라고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않은가.

現役教官에 心理的 위축느껴

▲康基用청주여大학장=한 대학에 현역교관이수十명씩 배치되기도하니까 학생들은 우선 심리적으로 위축을 느낀다. 현역교관을 예비역으로 바꾸고 인원도 대폭 줄여야 한다. 민주학원에서는 교육효율면에서도 현역보다 예비역이낫다고 생각한다.

해당大學出身教官 많이 起用

▲閔장관=학원내의 현역교관배치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六一년 ROTC창설때부터의 일이다. 현역교관과 학생과의 관계개선엔 국방부서도 세심하게 신경쓰고있으며 이러한 고려에서 교관가운데는 해당 대학출신이 많이배치되어있다.

四개大學으로 全大學이 被害

▲劉永大전북大총장=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예비역으로는 교련을 실시할수없다. 공부할때는 자유스럽게공부하고 교련할때는 현역교관밑에서 제대로받아야한다. 전국五十八개대학중 四개대학만이 교련을 안받는다고하는데 이四개대학때문에 나머지 五十四개대학이 피해받아서는 안된다. 몇대학에 강경책을 써서라도 선의의 많은 대학을보호해야한다.

兵役義務 처벌形式은 안된다

▲兪尚根명지大학장=문교부의강경태도보다 부드러운 태도가 더 바람직스럽다. 학생들이 병역의무를 명예스러운것으로 생각토록 이끌어야지 일종의 처벌형식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사회현상의 부조리가 학생심리속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직선적으로만 처리하려는것은 위험한생각이다. 최근의 학생동요는 ㊀학생 교수 학생간의 상호 이해부족 ㊁총학장과 교수들의 지도능력부족 ㊂교수방법과 내용의 결함등에있다고본다.

이時機, 大學生들의 각성必要

▲柳根昌국방차관=북괴가 계속 전쟁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현 여건에서 대학생들이 주二시간의 교련도 안받겠다고 사회문제까지 일으키는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대학생들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이 政治·社會的 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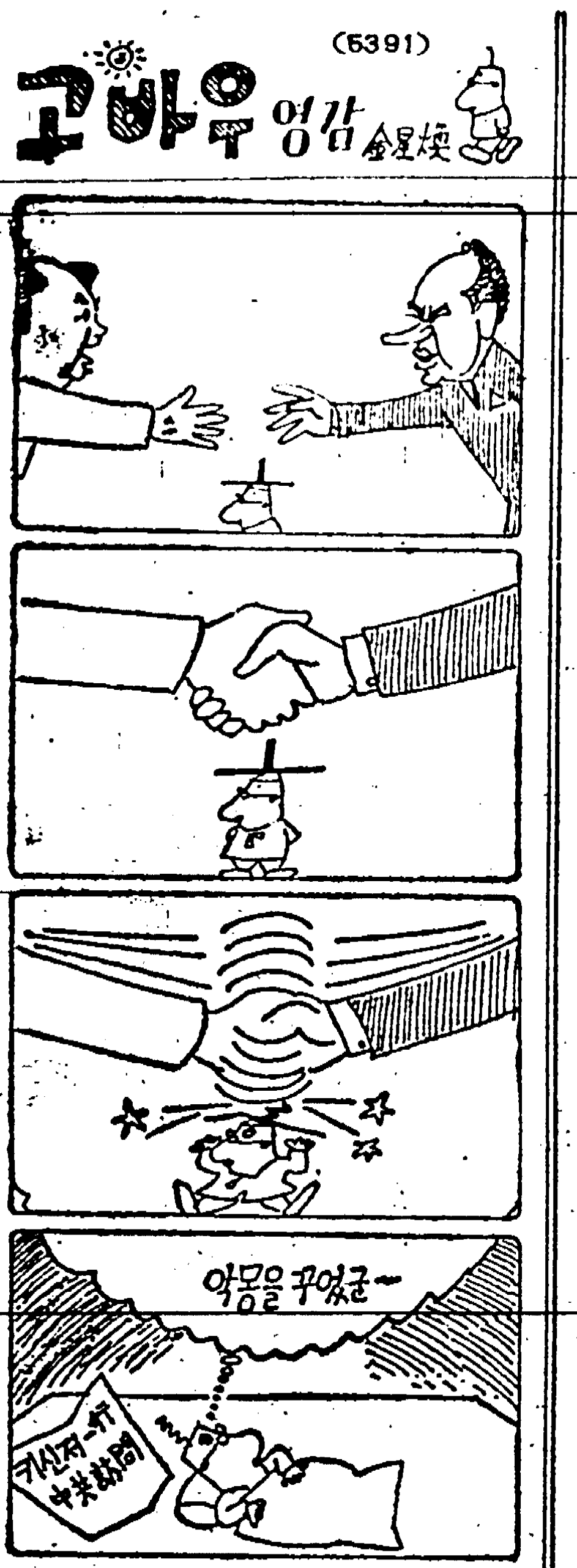
▲朴哲雄조선大총장=지금의 학생사태는 캠퍼스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다. 아까 브리핑차트에서도 봤지만 대학생들의 요구에 교육문제가 얼마나 되는가. 광주단지사건등 대부분 정치 사회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교련을 잘받겠다는 학생도 징집할것인지.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안된다.

義務 안지킬땐 權利 못받아

▲閔장관=학생도 의무를 안지킬때는 권리를 못받는 것이 당연하다.

「教鍊거부學生 징집」再考를

▲朱永夏수도여사大학장=학생문제는 법규로만 규제할것이 아니고 아량과 애정과 설득으로 처리해야한다. 교련거부학생 징집방침은 재고해주기 바란다.


(5391)
고바우영감 金星煥
악몽을 꾸었군~
키신저·中共訪問

刊行物12·서클8

文教部 단속대상發表

문교부는 十四일 폐간 해제등 단속대상으로 잡고있는 대학내의 미등록간행물(十二개)과 주요문제서클(八개)은 다음과같다고 밝혔다.

◇미등록간행물(괄호안은 발행자) ▲자유의종(서울대) ▲전야(서울대문리대 언론협의회) ▲의단(고려대학생회) ▲산지성(고려대학사회) ▲새나라(연세대학생회) ▲활로(연세대학회) ▲새얼(이화여대새얼모임) ▲횃대(전국대학언론인연합회) ▲새벽(서울대교양과정부사회법학회) ▲향토개척(서울대향토개척단) ▲횃불(서울대교양과정부사회과학연구회)

◇문제서클(괄호안은소속대학) ▲후진사회연구회(서울대) ▲사회법학회(서울대문리대) ▲한국문제연구회(서울대법대) ▲통일문제연구회(연세대) ▲한맥회(고려대) ▲한국사상연구회(고려대) ▲정진회(경북대·미등록)

教鍊방침不變 衝突피하도록

劉國防 教官團에訓令

劉載興국방장관은 『학생군사교육실시에대한 정부방침은 확고하며 일부학교당국이나 학생들의 요구에영향하는것과같은 지도개선이나 방침의변경은 있을수없다』고 밝혔다.

劉장관은 지난十三일자로 각 학교에 파견돼있는 군사교육단 요원에게보내는 훈령에서 이같이밝히고 『여하한사태에서도 이성을잃지말고 학생들의 극렬한 행동에도 의연한자세로 직접대결이나 충돌을피하라』고 지시했다.

미리 安全檢査받게

交通部, 團體輸送 안전運行규정 마련

교통부는 남원열차사고를 계기로 수학여행 단체관광객들의 안전수송을위해 교통부훈령三三九호로 「수학여행등 단체수송의 특별안전운행규정」을 새로 마련, 十五일부터 실시하도록 철도청과 각시도 지방해운국등 관계기관에 시달하고 운수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안전운행규정에 의하면 ▲철도수송의경우 각역장은 수학여행 관광여행등 단체여행신청을 받았을때는 수송차량의 선정과 정비 안전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인솔책임자와 호송책임자를 탑승토록하며 ▲자동차수송의경우 여행예약을받은 운수업자는 여행단체의인원 착지 출발일시등 여행내용 인솔책임자 운수업체에서 동승한 안전관리자 운전자와안내원 자동차의 차령과 정비상황등을 출발 二十四시간전까지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선박수송의경우 학교장 여행단체장이 여행 十일전에 출항지 목적지 인원수 여행일정등을 관할지방해운국장에게 제출하면 이를받은 지방해운국장은 선박회사와 협의, 여객선 출항일시 탑승장소와 방법을 여행三일전에 신청한 단체의 책임자에게 통보해주고 수시로 기상예보를 해운업자에게 전달하도록 되어있다.

환절기 감기조심!!
판피린

데모主動者 拘束방침

警察, 관련學生72명 連行調査

경찰은 十四일밤 대성빌딩에서 전국학생연맹총대회를 열려던 학생六十六명을 비롯, 十五일오전현재 서울시내에서 데모에 관련된 학생七十二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경찰은 조사결과 상습데모주동자나 극렬난동자들은 구속을 원칙으로하고 동조자나 관련자는 불구속입건또는 즉심에 돌리는등 강경방침을 세우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연행중인 七十二명은 서울상대생十명(성북경찰서연행중) 서울문리대 공대 사대 교양과정부등 四개대학 五十四명(동대문 청량리〃) 연세대생四명 명지대생三명 이대생一명(이상八명 서대문경찰서에연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教鍊거부學生 즉각入營조치

柳國防次官

柳根昌국방차관은 十四일 전국대학총장회의에서 무장군인 고려대난입사건에대해 『국방장관이 이미 유감의뜻을 표했지만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관련자의 처벌이 늦어지는것은 대학의 학생처벌과 마찬가지로 거쳐야할 절차가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柳차관은 교련거부학생들은각 대학에서 신고해오는대로 즉각 법절차에따라 입영시키겠으며국방부로서는 이들의입영을 시행못할 아무런 난점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서 劉載興국방장관의 『현역교관을 예비역으로바꾸도록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언급, 『이는 앞으로 학교자체에서 예비역으로도 효율적인교련을 실시할수있는 여건이 조성된뒤의 얘기이지 현재로서는현역교관을 바꿀생각이 전연 없다』고 말했다.

政府米販賣所 일제수사

放出米 싸전에 넘긴 三명에令狀

十五일 치안국은 요즘 정부미판매업소에서 정부미를 일반시민에게 팔지않고 고시가격보다 비싸게 일반미곡상에 팔아넘기는일이 많다는정보를입수, 전국경찰에 일제 수사를 지시했다.

치안국은 이와함께 정부미를 일반미곡상에게 팔아오면 趙鎭衛씨(二八·仁川市부평洞三一八)와 이를사들인 金察洙(二八·忠南天安市원성洞三四三) 崔晋와씨(四三·용산區용문洞八의一三三)등 모두三명을 양곡관리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

데모防止 협조를

閔文教 總學長불러

十五일오전 閔寬植문교부장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등 주요대학총학장十여명을불러 학생들의 데모를 막고 학원사태를 수습하는데 적극 협조해줄것을 요청했다.

延世大學生幹部13명 斷食농성 들어가

연세대 총학생회장 文常友군(二三·철학과三년)등 임원十三명은 十四일 오후三시부터 학생회관 제二회의실에서 ㊀부정부패 원흉색출 ㊁국방장관사퇴 ㊂학원자유수호등을주장, 三일간 단식농성투쟁에들어갔다.

학생들은 『그동안 정부당국이 학생들의 요구에대해 성의있는 답변없이 강경일변도의 학생탄압을 계속하고있다』고 말했다.

"腐敗分子처단" 全國學生聯선언문

전국학생연맹(위원장 宣炅植·외대행정과4년)은 15일오전11시 연세대 구내식당에서 선언문을 발표, ①거물급 부패분자처단 ②민중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 ③무장군인 고대 난입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등을 주장했다.

서울公害방지센터新設

保社部, 年內 기구擴張

보사부는 연내에 본청과 보건연구원의 공해담당기구및정원을대폭늘려 「서울대기오염방지센터」를 신설하는등 내년부터적극적인공해방지사업을펴나가기로했다.

十五일 보사부관계자에의하면 현재 보사부 본청안의 공해담당관실에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공정(公定)시험등으로세분, 사무관급이 이를전담케하며 보건연구원에도현재三급갑으로 보하는 「공해과」하나만있으나 「환경위생부」를신설,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공정시험등담당관을 따로둔다는것이다.

보사부는 또 보건연구원안에 「서울대기오염방지센터」를 신설, 심각해진 수도서울의 공해만을 전담케할 계획이다.

自動車 운송免許 새車만 登錄허가

公害막기위해

교통부는 날로늘어나는 각종 교통사고와 매연개스등으로인한 대기오염을막기위해 영업용차량으로 신규자동차운송면허를 받을경우 대도시와 지방을 막론하고 새차에한해 등록을받도록 하는등 「자동차등록요령」을 일부변경했다.

교통부는 지금까지 영업용의 신규등록을 대도시(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에한해 새차만 등록을받고 대도시의 노후또는 중고차량은 벽지노선에 투입하는 방침을써왔었다.

檢事長職印위조 不起訴證明떼줘

서울地檢사환구속

十五일 서울지검수사과는 지검기록과 사환金모군(一九)을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金군은 검사장직인을 위조,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의 기소중지자인 金양상씨로부터 「운전면허를 찾는데필요하니 무혐의증명을 떼달라」는 부탁을받고 위조직인을 찍어 불기소증명을 떼어주고 二萬원을받은혐의다.

訃音

▼楊[illegible]씨(동아일보全州주재기자)모친상=十四일 오전七시 全州市금암洞 자택에서 발인十六일오전九시 장지全北순창郡동계面구미里선영

▼鄭永一씨(동아일보기자)부친상=十四일 오전十시 釜山市 서대신洞三街六八六자택에서, 발인 十六일 오전十시

▼裵[illegible]씨(신아일보기자)모친상=十四일밤十一시 용산區한남洞한남시범아파트자택서, 발인 十六일 오후二시

▼鄭鎬淳씨(한국시리콘사대표이사)부친상=十三일오전 용산區청파洞一街八九의四五 자택서 발인十七일오전十시

휴지통

▼…전국대학총학장회의가 열리고 있던 十四일 오후四시경 중앙청광장에서 前 동두천 신흥중학 吳盟三씨(三四)가 독시위를 벌였는데…▼…七○년 전국대농대를 졸업한 그는 재학중 ROTC훈련을 받았으나 임관을 앞둔 무차 신체검사에서 늑막염으로 격이 되는바람에 임관은 못했을뿐아니라 병역법의 개정으로 하사관으로도 못가 고민하던중…▼…오는十一월十七일 입대하라는 영장이 나와 이날 『내노력의대가로 계급장을 돌려달라. ROTC의 불합리점을 개선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연행, 즉심에 넘겨졌다고….

胃潰瘍治療에!
사나휘린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약품 S3-710C8

헐은 胃壁에 건강한 새살을!

그것은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소망입니다.

▶위궤양 治療劑 『사나휘린』은
新生細胞의 生成을 促進하는 銅크로로피린의 強力한 作用으로 궤양部位의 헐은 胃壁에 건강한 새살이 보다 빨리 돋아나도록 促進함으로서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당신의 胃腸을 건강한 胃腸으로 만들어 줍니다.

▶위산과다治療는 위궤양治療의 先行條件!
위산과다의 症勢를 그냥 放置해두면 酸이 헐은 胃壁을 계속 侵蝕하기 때문에 위궤양치료는 어려워 집니다.
《사나휘린》의 主成分인 네오사나루민은 그 뛰어난 制酸作用으로 헐은 胃壁을 酸의 침식으로부터 보호하여 위산과다는 물론 위궤양治療에 보다 効果的인 薬効를 발휘합니다.

위궤양/위산과다/십이지장궤양/위염

潰瘍治療劑 〈緑色顆粒〉
사나휘린®
〈값·1.5g 1包30원〉

건강한 來日을 創造하는 企業
同和藥品工業(株)
《1897年 創立》

프로복싱
東洋페더級
타이틀매치
東洋 페더級 챔피언
金 炫 (한국)
12R
東洋페더級五位
歌川善介 (日本)
日時: 71년 10월16일 오후7시
場所: 장 충 체 육 관
中繼: 東洋TV—라디오
提供: 同和藥品工業(株)
主催: 環[illegible]푸로모[illegible]

피로회복·[illegible]강보호에
알프스®-디

ClibPDF - www.fastio.com